

일주문

도리사 솔바람 음악회
구미 도리사 주지 법흥 스님은 9월 17일 도리사 경내에서 '솔바람 음악회'를 개최했다.

개신교와 세계평화 토론회
금강선원 선원장 해거 스님은 10월 6일 오후 1시 탄허기념박물관에서 개신교와 세계평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용주사 효문화제
수원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10월 8일 용주사 경내에서 2011 정조 효문화제를 개최한다.

신흥사, 불교교양대학 수계식
속초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은 9월 16일 속초포교당 원각사에서 143명의 불교교양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계식을 봉행했다.

금산사 개산 1412주년 대법회
김제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10월 16일 오전 10시 금산사 대적광전에서 금산사 개산 1412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한다.

조계사 오뚝이 걷기 프로그램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10월 8일~12월 17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11회에 걸쳐 오뚝이 걷기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평화재단 제50차 전문가포럼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은 10월 11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북·중·러 협력관계를 주제로 제50차 전문가포럼을 개최한다.

대관음사 참좋은인연 의료법인 설립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은 9월 30일 영천 중앙병원을 인수해 참좋은인연 의료법인을 설립했다.

진관사 사찰음식 시연회
서울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은 10월 2일 진관사에서 사찰음식 시연회를 개최했다.

강주연 첫번째 앨범 '춧불'
불교음악가 강주연씨는 9월 29일 크로스오버 찬불가 앨범인 '춧불'을 발매했다.

동국대를 불심 제일 도량으로

정각원 4주년 토요일법회 여는 정각원 원장 법타 스님

"세상의 어떤 단 맛도 진실의 기쁨보다 더 단 것은 없습니다. 매주 토요일 정각원 법회를 통해 자기 절제와 참회의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동국대 정각원이 9월 24일 토요일 법회를 개원하고 일반 포교당으로의 변모를 선언한지 4주년을 맞았다.

토요일법회 개원 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 자리에서 정각원장 법타 스님은 "토요일법회가 불교와 사회를 소통하는 대표법회로 발전하도록 교계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을 초청해 불교교리를 익히며 신생활을 나누는 법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09년 본사주지인 은혜사 주지를 역임한 법타 스님의 동국대 정각원장 취임은 교계에서 신선한 충격이었다. 스님의 정각원장 취임은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졸업한 스님의 모교 사랑도 있었지만 불심을 갖춘 참인재를 키워내고 싶은 스님의 원력이 더욱 컸다.

스님은 2009년 불자와 교직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토요일법회를 시작했다. 특히 교직원 대상에서 인근 거주 지역 주민과 학생들로 포교의 범위를 확대해 나갔다.

그 결과 정각원은 매주 200여 명이상이 다녀가는 도심 속 포교당으로 성장했다. 정각원은 동국대 부속 종교시설에서 벗어나 운영조직을 구성하고 조계종 사찰로 등록하는 등 사찰의 면모를 갖췄을 뿐만 아니라 포교원이 인가한 정각원 불교대학을 설립하고 장학생 선발, 복지시설 수탁경영 등 도심 포교사찰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날 법회에서는 학생들을 비롯한 불자 150여 명이 참석해 그동안 정각원 포교활동의 성과를 여실히 드러냈다. 법타 스님은 "前 정각원장 종호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스님을 시작으로 정인아 신도회장을 비롯한 정각원 신도분들의 노고가 컸다"며 "내일에 대한 희망과 자신이 없는 우리에 인생이 무의미하듯 더욱 발전하는 정각원 미래를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세상을 탐욕의 불이 타오르는 화택에 비유한 <잠아함경> 경전 문구를 들며 불자 대중의 수행정진을 당부했다.

스님은 "생로병사의 윤회 속에 불타고 있는데 그 안에 물질, 명예, 사랑으로 인해 못 뚫어나고 있다. 용기와 신심을 가지고 이를 떨치는 불자들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념법회 사전 축하무대에서는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예술단 '동국에소리'의 전통예술 공연과 정각원합창단의 공연이 진행됐다. (02)2260-3016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수십년 간 증득 바탕 집필"

성남 무아선원 혜원 스님

"철거가 나를 좀 더 깊은 수행으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남시 단대동 재개발 사업으로 법당이 입주했던 건물이 철거돼 어려움을 겪었던 혜원 스님이 최근 무아선원을 열고 9월 18일 개원법회를 가졌다. 법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혜원 스님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스님은 또 수년 전부터 준비했던 <생각 다스리는 수행론>도 출판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생각을 다스리는 수행론>은 특히 유식 30송에 담긴 의미를 고찰하면서 수행론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수행을 위한 5단계인 혼란기 안정기 관찰기 깨침기 수습기를 설정했다. 생각이 일어나 차별하면 습관 때문에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혜원 스님은 "돈을 벌겠다는 사람은 돈을, 건강을 원하는 사람은 건강을, 깨달음을 원하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스님은 11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생각 다스리는 수행론'을 중심으로 선(禪)불교를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는 방법을 강의한다. (031)721-2148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동국대 동불연꽃제 성료

불교문화축제 '동불연꽃제'가 9월 21~22일 이틀간 동국대 분관 앞 팔정도 공원에서 1500여 재학생이 참석하는 등 많은 인기 속에 성료했다.

동국대 불교대학 학생회(회장 유종우)가 마련한 동불연꽃제는 동국대 재학생들에게 불교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경체행, 염주, 만다라 책갈피 만들기 등을 비롯해 다양한 불교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불교대 학생회장 유종우(불교학과, 3학년) 학생은 "학생들이 스님들과 차담을 나누며 불교에 대한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불교종립인 동국대 재학생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불교문화축제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일봉스님의 사상 선양에 앞장"

제40회 일봉문도의날 개최 일봉문도회 회장 의륜 스님

"결집대회를 시작으로 초대 세계법왕 일봉 스님의 대중포교 사상을 널리 퍼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세계불교법왕왕 조대법왕을 역임한 일봉 스님의 사상을 선양하는 일봉문도의날 40주년을 맞아 전국일봉문도중앙회 회장 의륜 스님은 일봉 스님의 대중포교 운동을 적극 계승할 것을 밝혔다.

의륜 스님은 "일봉 스님은 한국 불교를 서구에 최초로 알리신 세계적인 포교사로 120개국에서 결집해 스님의 뜻을 기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국일봉문도중앙회는 제40회 세계법왕 일봉문도의날을 맞아 일봉계보를 발간하고, 일봉사상 강연 및 시낭송 대회, 일봉다큐기록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일봉계보는 그동안 일봉문도의 맥을 정리하는 최초의 시도다.

의륜 스님은 "그동안 종교, 문도간 결집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번 계보 발간과 함께 흩어진 일봉문도와 각 불교단체간 연계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륜 스님은 1971년 29세



의 나이로 전북 금산사에서 출가한 이후 청운사와 송산사, 동암사, 동해사, 운봉사, 송림사, 불탑사 등 전국에 사찰을 건립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대한불교종단연합회 회장과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 전국일봉문도중앙회 중앙회장으로 소리라가 국립 불교대와 태국 룡천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군장병 템플스테이 확대 노력할 터

강화사암연합회장 선암 스님(적선사 주지)

"역사적으로 국방의 요지였던 강화도는 문화적으로는 불행 흥포를 통해 세상을 편케 하려는 뜻을 지닌 땅입니다. 이런 강화도에서 군장병들이 호국정신을 기를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 국민을 위한 건강한 마음가짐을 길러길 바랍니다."

강화사암연합회 회장 선암 스님(강화 적선사 주지)은 9월 21일 강화도 전동사에서 열린 해병대 템플스테이에서 "부처님과의 만남이 이 사회의 주역이 될 장병들의 바른 생각과 바른 시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병대의 전동사 템플스테이 참가는 전 군 최초로 군 장병들의 인성교육 및 심리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해병대 기수열의 총기난사와 같은 군내 폭력사건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해병대를 비롯한 군은 전동사에서의 템플스테이가 군내 문화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병대는 주 제1기 템플스테이를 시작으로 강화사암연합회 후원 하에 매월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스님은 "전방지역에는 군법사가 없는 법당들이 많다. 지역사찰과 연계를 통해 불자 군 장병들이 수행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군법사들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암 스님은 9월 14일 강화사암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해 주 민체육대회개최를 준비하는 등 포교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천진영 기자 chun4g@gmail.com

온라인 무료 강원생 모집

본종 중앙승가강원에서는 포교일선에서 전법에 여념이 없으신 사문들을 위해 전학년 무료로 사이버 공간(온라인)을 이용한 강원을 개설하였습니다.

소중한 인연을 맺으실 사문들을 기다립니다.

- ▶ 모집학과 : 승가학과 00명 (선착순)
▶ 응시자격 : 승려, 법사(가입종단 상관없음)
▶ 교학과목 : 아함경, 법구경, 금강경, 능엄경, 원각경
▶ 교학기간 : 3년 6학기
▶ 응시기간 : 10월 6일까지 (10월 10일 개강예정)
▶ 응모방법 : www.arahan.org에 접속 후 회원가입하신 다음 → 종단기관 → 중앙승가강원 → 승가학과 아래쪽의 입학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다음 031)753-3354 팩스 송부하시면 됩니다
▶ 문의메일 : nibvana@hanmail.net으로 문의 바랍니다.

대륜불교조계종 중앙승가강원

043)848-7556 / 031)753-7377

일상생활 가운데 간화선이 되어야 행복합니다.

수행자가 만 가지를 보고 듣고 정리하여 깨달음에 들기 위한 방편이야기 (생각 다스리는 수행론) 저자 강의

- 1. 혼란기 : 종교에 귀의하지 않고, 나는 종교가 불교라고 하는 사람.
2. 안정기 : 불법승에 귀했지만, 방황 중에 있는 사람
3. 관찰기 : 내주변이 안정되었으나, 아직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
4. 깨침기 : 주변과 생활이 안정되고 좋으나, 깨달음이 무엇일까? 목마른 사람
5. 수습기 : 공(空)에 들었으나 혼침과 도거에 빠지는 사람, 깨달았다고 자만하는 사람, 인연(人天)의 스승이 되고자하는 사람.



근본은 단계가 없고 보고 듣고 대로 알면 되지만, 생각 일어나 차별하면 습관 때문에 단계가 필요하다.

1700년 전 선(禪)불교를 일상생활 가운데 단계로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유식30송, 대승육정장회, 서장)접목

11월 2일 수요일 저녁 7시30분 첫 강의 시작됩니다.

3개월 : 150,000원 미리 예약하세요. (외환은행 620-185934-368 장흥관)

성남모란역 3,4번출구 사이길 직진 50M / 문의(수행접수) 031)721-2148~9

무아선원 선원장 혜원 합장